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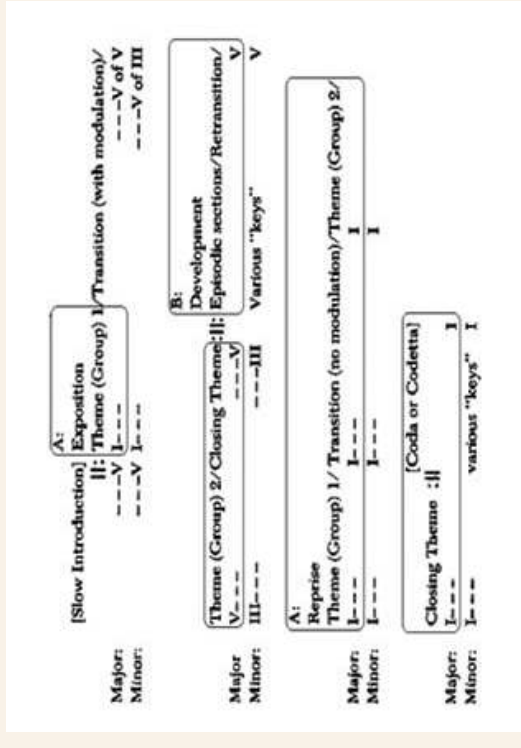


배음과 소나타

음악 역사에서 아주 많은 양을 자랑하는 피아노 소나타, 첼로 소나타, 바이올린 소나타는 일반적으로 반주를 동반하거나 반주가 없는 독주곡을 일컫는다. 그래서 곡목(~ 소나타)으로도 쓰인다.

지난 글에서 많은 곡들이 서로 다르게 들리는 이유들을 살펴 보았다. 피아노 소나타와 심포니가 다른 것은 장르가 다른 것이다. 바하의 소나타와 브람스의 소나타가 다른 것은 바로크/낭만의 스타일이 다른 것이다. 스타일이란 곡의 색깔과 텍스처, 화음, 리듬, 선율, 형식 등을 비교하는 것이다. 그러나 그 변화의 근거가 배음에 있고 곡의 음색 tone color이나 분위기도 근본적으로는 배음 간격, 음역과 관련된다. 이를 오케스트레이션의 약기법론을 통해 알아 보았다. 그러므로 같은 작곡자의 작품도 다르게 들릴 수 있고, 서로 다른 시대의 음악도 비슷하게 들리기도 한다. (스타일에 관한 관심이 있는 분을 위해 책을 하나 소개하고 싶다. A History of Musical Style -Richard L. Crocker)

이제 소나타의 구조와 배음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. 바로크와 고전시기의 중요한 곡의 형식 혹은 과정을 두 개 뽑는다면 소나타와 푸가일 것이다. 소나타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. 음악 역사에서 아주 많은 양을 자랑하는 피아노 소나타, 첼로 소나타, 바이올린 소나타는 일반적으로 반주를 동반하거나 반주가 없는 독주곡을 일컫는다. 곡목도 '~ 소나타' 로 쓰인다. 더 나아가, 소나타 형식이란 3~4 악장의 챔버(chamber)나 교향곡(symphony, 협주곡(concerto, 독주곡(solo sonata 등의 한 악장의 형식을 일컫는다. First movement form, 혹은 sonata allegro form)이라고 하며 제시부exposition, 전개부development, 재현부recapitulation의 세 부분(three parts: A-B-A)으로 구성되어 있다. 마지막 부분에 첫 A가 반복되는 구성으로 세 다리를 가진 의자처럼 안정적인 구조를 가진다. 그러나 그 안에 선율의 상승과 하강, 리듬의 활동성, 다이내믹스(강세), 짜임새, 악기법, 협/불협의 분량과 정도, 화음 변화의 속도를 통해 긴장과 이완의 형태(shape)를 가진다.



소나타 형식의 구조 A(Exposition)-B(Development)-A'(Reprise or Recapitulation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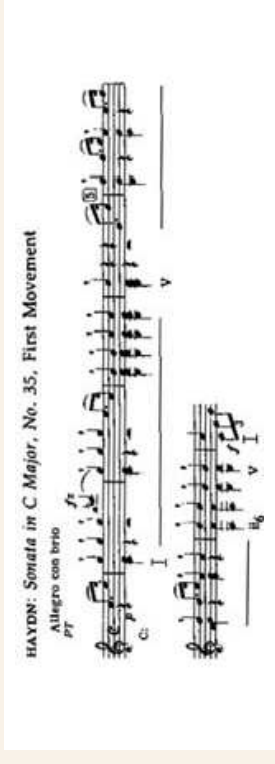
소나타의 일반 구성인 위의 도식을 보자. 제시부에 들어 있는 제 1주제(Theme I 혹은 PT: Principal Theme)는 *오름조(tonic key=I)로 시작하고 제 2주제(Theme II 혹은 ST: Secondary Theme)와 발전부에서는 가장 가까운 조에 해당하는 *말림조(dominant=V)를 사용한다. 단조의 경우는 III도조를 경유하는 것을 제외하면 장조와 같고, 재현부(Theme I, II)에서 다시 원조인 으뜸조(I)로 돌아오게 된다. 전체를 보면 I-V-I(C 장조인 곡의 경우: C-G-C, C단조인 경우: C-Eb-G-C)로 우리가 들었을 때 자연스런 곡의 흐름을 가지게 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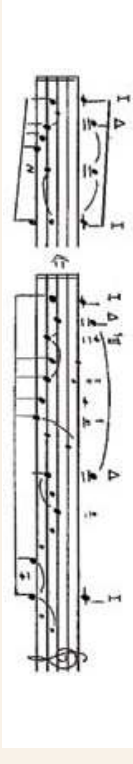
바로크와 고전, 낭만시기의 소나타를 포함한 다른 장르의 모든 곡들, 작은 소품으로부터 긴 곡에 이르기까지 이런 전체 구조(I-V-I)를 가지고 있다. II, III, IV, VI, VII의조를 빼고 왜 5도 위의 음에 해당하는 V(dominant) key가 우세했을까? 아무리 찾아봐도 배음의 원리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. 첫 16개의 배음 중 기본(fundamental(배음중 첫음)과 같은 음을 빼고 남은 15음은 5도 위의 음이다. (예, 기음이 "도"라면 5음은 "솔")이다. 이 "솔"이 만드는 화음(솔-시-레)은 항상 도-미-솔 화음으로 가려는 성향이 있다. 왜 그럴까? 5도에서 만들어지는 화음(솔-시-레)안에 긴장을 갖는 음(시)이 있고 이 음은 1음(시)-도: 반음 간격)으로 가려는 성향(긴장)이 있기 때문이다. 결국 기음 위 5도 음 위에서 생기는 화음은 1음을 중심으로 안정(이완)하려 하는 것이다. 추상적인 생각이지만,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자신을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는 원리와 같다.

*곡이 C 장조라 하면 C 장조 음계(scale)를 중심으로 곡이 만들어지고 "C"가 중심조가 된다. 음계의 각 음마다 수직으로 3도씩 떨어진 화음을 만든다면, 예를 들면 "도"에서 만들어지는 "도-미-솔"을 로마숫자를 사용하여도 화음이라 하고 "레"에서 만들어지는 "레-파-라"는 "II"도 화음이라 한다. 그러므로 V도 화음은 다섯번째 음인 "솔"에서 만들어지는 "솔-시-레" 화음을 의미한다. 왜 주어진 화음(예)에 가장 가까운 화음과 key인 "V" 화음과 G 장조를 곡의 구조화음과 key로 사용하는 것은 배음과 연관할 때 참으로 재미있는 현상이다.

다음 곡은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35번 C장조, 1악장의 제 1주제(PT: Principal theme)이다. 조금 더 자세히 제시부의 첫 부분인 제 1주제부분의 화음진행을 살펴보고 배음과의 관계를 살펴 보겠다. 위의 큰 도식이 아래의 phrase(악구)안에도 축소되어 I-V-I 구조 화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. 곡 전체의 첫 주제인 I(C장조)과 발전부의 V(G장조), 다시 재현부에서 I(C장조)로 복귀하는 것과 일치한다. 곡 전체와 각 부분이 한 논리(같은 화음을 사용하는)를 가진다.



축소(middleground, background)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음, 화음, 선율을 볼 수 있다. 이를 구조화음과 구조선율이라 부른다. 첫 도식인 소나타 형식의 구조와 아래 분석된 첫 주제의 구조가 똑 같아서 전체와 부분간에 통일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. 이는 배음의 우선 순위에 따라 곡의 우세한 화음과 조key가 결정된 것이고, 이로 인해 전체 조key와 부분이 일치하는 통일성이 생긴 것이다. 이런 곡의 구조를 200여 년 간의 작곡들이 증거하고 있고, 지금도 연주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연주 곡목들이다. 축약형 악보를 보자. 전체 I-V-I 같은 I-V-I의 구조이다.



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no. 35번 축약(middleground)과 background)

바로크시기와 고전, 낭만시기를 걸쳐 조성이 파괴되기 전까지 역사적으로 소나타를 포함한 모든 장르의 곡들이 이런 배음의 특징을 따른다. 한 곡의 "통일성(unity)", 음악 외 미술과 건축, 문학 등 모든 예술가의 작품에 존재하는 통일성(unity)... 예술이라는 이름 안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. 배음이 이 곡의 통일성을 만드는 원재료(Raw material)이다. 하나님께서 만든 원재료로 우리는 제2의 멋진 창조를 한다. 인간의 자리는 너무나 멋진 자리 아닌가?

다음 글은 푸가에도 이런 원칙이 어떻게 지켜지는지 살펴보고 인간의 예술성과 그 책임에 대해 논하겠다. 다음 글은 푸가에도 이런 원칙이 어떻게 지켜지는지 살펴 보겠다. 6



이강원 현영대 작곡과를 졸업하고 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 음악 석사 및 박사(IDMA) 학위를 받았다. 현영대 및 대학원, 단국대 등에서 강의를 하였으며, 필라델피아 Stri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챔버 코치를 거쳐 현재 하뉴소리 홀스소리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 및 자취사로 활동하고 있다. 역시로는 '기독교세계관으로 본 음악(원제: Sound Shewardship)(DCTV)'이 있다.